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는 선장.

같은 시각...너무나 다른 2개의 동영상 보니 선장은 속옷 차림 탈출... 분노 아이들 구명조끼 양보... 울적

“야 00야, 00개 (구명조끼) 없어. 받아와야 돼.”(단원고 학생)
“내 것 입어.”(단원고 학생)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찍힌 10여분 짜리 상반된 두 개의 동영상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분노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다.
두 개의 동영상은 사고 당시 비슷한 시각에 찍혔지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몰염치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학생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로를 챙기는 상반된 모습을 담고 있다.
28일 해경이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 최

초 구조상황이 담긴 9분4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이 동영상은 지난 16일 오전 9시28분58초부터 11시17분59초까지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었다.
특히 이준석 선장은 제복을 벗고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서둘러 해경 구명보트에 올라타 구조됐고, 선원들도 서둘러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급급했다. 일부 선원은 구조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여유도 부렸다. 이들은 가장 먼저 탈출한 기관실 선원 8명으로, 이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바로 옆에는 침몰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구

명정이 있었다.
또 단원고 학생들은 해경 구명보트에 매달려 해경단정까지 온 승객들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 한 학생이 촬영해 아버지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당시 학생들이 모여있던 객실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5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챙기면서, 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한없이 착한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서 학생들은 침몰이 시작된 직후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배



방송을 듣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가 기운 지 10분이 넘어가면서 구명 조끼를 찾고, 서로의 구명 조끼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선장은 뭐하길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특히 한 학생이 “엄마, 아빠 아빠 아빠야. 내 동생 아떡하지”라며 걱정을 시작할 무렵, 배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온다. 학생들은 “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 동영상은 학생들이 탈출을 생각하는 모습과 선장님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이 시간에만 제대로 안내 했어도 많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8일 오후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유류품 보관소 주변 빈터에 세월호에서 사용된 구명정과 구명 조끼가 쌓여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왕좌왕 구조작업, 1명도 못 구했다

‘국민 안전’ 시스템이 없는 나라

③ 리더십 부재가 피해 키운다

#. 영화 ‘위위술저서’(2002년)는 베트남 전쟁을 무대로 한 영화다. 주인공 할머이 중령(백 김승 분)은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맹세한다. 전투에 투입되면 나는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나중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 영국 해군 수송선 버켄헤드(Birkenhead)는 지난 1852년 사병들과 가족 630명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해하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 상황에 처했다. 130명의 부녀자가 타고 있었던 상황, 1척당 수송인원 60명 뿐인 구조선 3척이 전부였다. 풍량이 더 심해지면서 빠른 결단하지 않으면 모두 목숨을 잃을 형편이다. 이때 사령관 시드니 세튼 대령은 병사들에게 갑판 위에 집합하도록 한 뒤 ‘차렷’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사들은 부동자

정부 대책본부 10여개...컨트롤 타워 없어 혼선

초동대처 못해 300여명 캄캄한 바닷속으로

세로 멈춰섰고 부녀자들은 구조선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사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물 속으로 사라졌다. 영국에서 지금껏 금지를 갖고 지켜 내려오는 ‘버켄헤드호를 기억하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2014년 4월 16일, 이날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다.
“민고 떠들만한 리더, 영화에서만 존재하나”=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만 없었던 건 아니었다. 400명 넘는 승객이 6000t급 여객선이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조 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책임감 있는 ‘리더’도 없었다.
결국, 온 국민은 방송을 통해 한낱 대담에 눈 뻘히 뜨고 300여명의 승객이 배와 함께 바다 속에 가라앉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며 슬퍼하고 분노해야 했다.
배가 가라앉은 뒤에라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면서 가족들을 안정시킬

‘해결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368명이 살아있다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가 3시간여 만에 164명이라며 말을 바꿔 안도하고 있던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중에는 시신조차도 뒤바뀌 가족들을 두 번 울리기도 했다. 정부 행동이 못미더웠는지 대통령 앞에서 “아이를 살려달라”며 허벅지가 무릎을 꿇는 일까지 발생했고 청와대로 가겠다고 새벽에 먼 길을 걸어간 실종자 가족들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이 10일 넘게 계속되는데, 또다시 ‘시한부’ 총리를 내세워 가짜나 불신으로 뒤덮인 현장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무기력한 대응 능력=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 부재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뒤 수습·대처를 위해 대책본부를 꾸렸다. 안전행정부 소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외에 해양경찰청의 중앙구조본부, 서해해경청 광역구조본부, 해군 사고현장 구조지원

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됐고 인천·목포지방방위청과 교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도 각각 수습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여기에 범부처 사고수습본부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10개에 이르는 대책본부에도 정확한 생존자 숫자·승선인원·구조 상황조차 제대로 전파하지 못해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을 샀다. 사고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된 뒤 고작 3시간여만에 구조자를 164명으로 뒤바꿨다. 승선인원도 462명(16일)→475명(17일)→476명(18일) 등으로 시시각각 변했다. 해경은 시신조차 바뀌 유족들을 울렸고 공무원들은 속 시원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서 하세요” 등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존재, 기능이 작동해 현장을 장악한 뒤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을 지휘·통제, 조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위기 관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특히 대형 재난 사고의 경우 책임 있는 리더십이 더 큰 혼란을 막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구명벌·구명조끼 20년된 일본 제품

선박 인수후 한번도 교체않고 비치...안전점검 모두 통과

지난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구명벌과 구명조끼가 무려 20년전 제작된 낡은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진도 팽목항 인근 유류품보관소에 인계된 세월호 구명벌과 구명조끼를 확인한 결과 제조연월이 1994년 5월로 표기돼 있으며, 일본 제품이었다.
1994년은 세월호가 일본에서 건조된 시점으로 당시 비치해 둔 구명벌과 구명조끼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해상 사고에서 탑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벌은 물에 가라앉더라도 일정한 수압이 되면 수압 분리가 작동해 자동으로 퍼지게끔 돼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구명벌은 배가 침몰했음에도 부풀어오르지 않았다.
침몰사고 13일 만인 28일 새벽에야 사고 해역에 구명벌 4개가 떠올랐다. 사고 당일에 나산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지만 1개만 퍼졌다.
구명조끼 역시 만들어진지 20년이나 지난 제품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음에도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일 승객들이 이를 착용했다면 수면 위로 잘 떠올랐을지 의문이다. 구명조끼의 부력제가 부식되거나 손상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명기구에 대해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통과시켰다.
한편 팽목항 유류품보관소에 보관돼있는 구명벌과 구명조끼는 지난 25일 해경이 진도군청에 인계한 것이다. 구명벌 5개와 구명조끼 17개이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화사한 봄나들이 떠나세요!

별에서 온 룩가
5~6월 출발 히니문 상품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망산구 월계동점(2층) 1층	062)431-0102
가람여행사 남구 봉선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게임

무인출발 2014년 04월 09일 ~ 2014년 6월 04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제주] 이강유람*관암동굴 게임/양식 4일 4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제주] 인상유람*발마사지 게임/양식 4일 6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제주] 인상유람*항시호*용승원 게임/양식/용승 5일 999,000원 ~ 출발일 토요일	[제주] 인상유람*항시호*용승원 게임/양식/용승 5일 999,000원 ~ 출발일 수, 토요일

꽃할배 추천여행지
정열의 스페인

인선출발 KE-2014. 5. 9 ~ 6.13 주 3회(월수금)
OZ-2014. 5.13 ~ 6.13 주 2회(화,목)

하노이&스페인 스페인인원 10일 2,490,000원 ~ 출발일 5월, 월/수/금요일	제주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2,8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클라식 스페인 항공인원 9~10일 3,7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클라식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3,7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 화, 수, 금요일

[CCPF01-MUX]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 299,000원 ~
출발일 5월 14일, 28일

[CBPF04-OZ1] 북경/태항산(만선산)인원 4일
799,000원 ~
출발일 5월 매주 화, 금요일

[CPFP01-CZ1] [제주] 이강유람*관암동굴
게임/양식 4일 4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CPFP01-CZ2] [제주] 인상유람*발마사지
게임/양식 4일 6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CPFP01-CZ3] [제주] 인상유람*항시호*용승원
게임/양식/용승 5일 999,000원 ~
출발일 토요일

[CPFP01-CZ4] [제주] 인상유람*항시호*용승원
게임/양식/용승 5일 999,000원 ~
출발일 수, 토요일

[APW11-D] [직항]보라카이 5일
가든 리조트
899,000원 ~
출발일 5월 ~ 일/월요일

[ABW103-885] 푸켓 6일
옥시즌 풀빌라
1,000,000원 ~
출발일 5월 ~ 일/월요일

[PPW413-OZS] 팔라우 6일
로얄 리조트
1,690,000원 ~
출발일 5월 ~ 일요일

[HHW12-HAA] 마우이+오아후 7일
로얄리조트 + 에스톤 와이키키 호텔
2,440,000원 ~
출발일 5월 ~ 토요일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정보료, 현지관광감독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